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

- CNN Business: 파월, “고물가 참지 않겠다”는 입장에 일부 전문가 “글쎄”

[미국 금융]

- WSJ: 미국과 유럽 물가 극복 쉽지 않아... 중앙은행들과 투자자에 도전
- Bloomberg: 연준 선호 물가 지표 호조에 금값 기록적으로 상승
- WSJ: 증시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 아니라 ‘패브 4’

[물류]

- CNN Business: 미 교량 13개 중 1개는 상태 불량
- WSJ: 볼티모어 다리 건설 이후, 선박 크기 초대형화됐다

[주택]

- Bloomberg: 올해 미 주택 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할 듯
- CNN Business: 연방 10만불 이상 돼야 집 살 수 있는 주는 22개주
- WSJ: 베이비부머 세대 진입으로 ‘시니어 하우스’ 공실률 준다

[전기차]

- NyGov: 뉴욕주지사, “뉴욕시에 고속 전기차 충전기 1백대 이상 설치”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연방우체국, 항공 화물에 FedEx 대신 UPS 선정
- WSJ: AT&T, 고객 정보 유출 후 7백60만 고객 비밀번호 리셋
- Bloomberg: Walgreens,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 고객 지출 감소 탓
- Bloomberg: 테슬라를 향한 월가의 우려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CNN Business: Chair Powell says the Fed isn't more tolerant of higher inflation. Some economists disagree

파월, “고물가 참지 않겠다”는 입장에 일부 전문가 “글쎄”

- 물가가 둔화하고 있지만 연준의 목표인 2%를 계속 상회하고 있다.
- 2월 물가는 작년 동월 대비 2.6%로 나타났다. 파월 의장은 시간이 가면서 물가를 2%로 떨어뜨리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동시에 파월 의장은 올해 어느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 이코노미스트 Mohamed El-Erian는 “연준은 단기적으로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하면서도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CNN Business 기사

[미국 금융]

WSJ: Inflation Victory Is Proving Elusive, Challenging Central Banks and Markets**미국과 유럽 물가 극복 쉽지 않아... 중앙은행들과 투자자에 도전**

- 미국과 유럽에서 물가가 기대보다 고착된 것으로 보여 중앙은행들과 투자자들에 고민이 되는 상황이다. 투자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게 아닌지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 작년 하반기 선진국 경제들은 식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3% 하락했지만 이후에 3.5% 상승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물가가 둔화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재고하고 있다.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보이면서 70년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보였던 2차 파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서비스 물가도 계속 오른 상태에 있고 상품 가격은 작년에 낮아졌으나 현재 오르고 있다.

WSJ 기사

Bloomberg: Gold Jumps to Record as Favored Fed Inflation Gauge Stokes Rally**연준 선호 물가 지표 호조에 금값 기록적으로 상승**

- 지정학적인 긴장과 강력한 중국의 수요에 따른 랠리에 연준이 금리를 인할 가능성이 더해지면서 금값은 기록적인 가격을 보였다.
- 월요일 금값은 지난주 목요일 종가보다 1.6% 오른 온스당 2천2백65불 73센트를 기록했다.
-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개인소비지출 지수가 하락했고, 연준이 신중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차입비용 감소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WSJ: The Stock Market's Magnificent Seven Is Now the Fab Four**증시는 이제 '매그니피센트 7'이라 아니라 '패브 4'**

- 매그니피센트 7개 주식이 흔들리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여전히 상승세다.
- S&P 500은 올해 1분기에 10% 상승했는데 지난 2019년 이래 초반에 가장 상승한 해다. 물론 애플과 테슬라 등이 주가가 떨어졌지만 매그니피센트 7개에 속한 엔비디아,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인 시장 움직임보다 빠르다. 일부에서는 이들 4개 종목을 새로운 '패브 4'(Fab Four)라고 부른다.

- 일부 투자자들은 애플과 테슬라가 없어도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고 말한다. 다른 그룹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제외한 S&P 500의 첫 분기 실적이 좋았고, 스몰캡, 산업 및 금융 서비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한 그룹 종목이었다. 이는 증시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더 있다는 것이다.

WSJ 기사

[물류]

CNN Business: 1 in every 13 bridges in America is in 'poor' condition. Thousands could collapse from a collision

미 교량 13개 중 1개는 상태 불량

- 볼티모어의 '프란시스 스콧 키 브리지' 사고 발생으로 60만 개가 넘는 미국 교량의 잠재적 취약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미국 토목학회와 연방 정부에 따르면 미국의 4만6천개의 교량이 노후화되어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1만7천개의 교량은 한 번의 타격만으로도 붕괴될 수 있는 상태이다.
- 엔지니어 및 전문가들은 기상이변, 점점 대형화되는 트럭, 대형 컨테이너 선박의 충돌 등이 미국 교량에 큰 위험을 준다고 설명했다.

CNN Business 기사

WSJ: Ships Have Become Supersized Since Baltimore Bridge Was Built

볼티모어 다리 건설 이후, 선박 크기 초대형화됐다

- 1977년에 볼티모어 항구를 가로지르는 키 브리지가 건설됐을 때, 항구에 입항하는 가장 큰 화물선은 2천~3천 개의 컨테이너를 수용할 수 있었다.
- 최근에는 컨테이너 운반선부터 크루즈선까지 선박들의 크기가 초대형화되는 추세다. 선주들이 비용을 절감하고, 연료 배출량을 줄이고 인기 항로에서의 수용 인원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다.
- 초대형화된 선박 때문에 대형 항만에만 있는 대형 수로, 초대형 크레인 등이 필요하다. 이에 최근 뉴욕과 캘리포니아, 롱비치를 포함한 일부 미국 항구에서는 더 큰 선박을 수용하기 위해 다리를 높이거나 교체하는 모습이다.

WSJ 기사

[주택]

Bloomberg: US Home Insurance Premiums May Hit a Record This Year, Report Warns

올해 미 주택 보험료 사상 최고 기록할 듯

- 올해 미 주택 보험료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주에서는 극심한 날씨 탓에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
- 올해 말까지 미 평균 주택 보험료 평균은 2천5백22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관련 조사 플랫폼인 Insurify는 추정했다. 전국적인 날씨 재난과 상승하는 재보험 비용, 그리고 개보수 비용 증가로 인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In these 22 states, you need a six-figure income to afford a typical home, analysis finds

연방 10만불 이상 돼야 집 살 수 있는 주는 22개주

- 집을 구입할 여력이 지난 2020년 이래 더 힘들어 지고 있다.
- Bankrate.com에 따르면 워싱턴 DC와 22개 주에서는 전형적인 중산층 주택을 사려면 연봉이 10만불 이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 가격 상승세가 임금 상승세보다 높기 때문이다.
- 가장 연봉이 높아야 하는 주는 아래와 같다: California (\$197,051); Hawaii (\$185,829); District of Columbia (\$167,871); Massachusetts (\$162,471); and Washington State (\$156,814). 다른 주의 경우는 아래와 같다: Connecticut (\$119,614), New Jersey (\$152,186); New York (\$148,286).

CNN Business 기사

WSJ: Senior Housing Rebounds as Boomers Move In

베이비부머 세대 진입으로 '시니어 하우스' 공실률 준다

- 팬데믹으로 인해 노인들이 사는 공간인 시니어 하우스의 공실률이 줄었다. 그러나 이제는 추세가 바뀌고 있다. 구체적으로 작년 4분기의 경우 평균 입주율은 대형 31개 관련 주택 마켓에서 85.1%를 차지했다.
- 이 수치는 팬데믹 전인 2020년 1분기보다 2% 낮지만, 2021년 상반기의 77.8%보다 높다.

WSJ 기사

[전기차]

NyGov: Governor Hochul Announces More Than 100 New Electric Vehicle Fast Chargers to be Built in New York City

뉴욕주지사, "뉴욕시에 고속 전기차 충전기 1백대 이상 설치"

- 뉴욕주 캐시 호철 주지사는 뉴욕주 정부는 1백에의 고속 전기차 충전기 1백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맨해는 재빗 컨벤션 센터에서 뉴욕 인

터네셔널 쇼가 개막되는 시점에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 그는 지난 5년 동안 전기차 구매가 6백60% 상승했으며 빠른 충전기의 가용성을 정부는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NyGov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Postal Service Picks UPS to Move Air Cargo, Replacing FedEx 연방우체국, 항공 화물에 FedEx 대신 UPS 선정

- 미국 연방우체국은 항공 화물 운송의 주요 파트너로 20년 넘게 서비스를 제공해 온 FedEx 대신 UPS를 선택했다.
- 월요일 FedEx는 미국 우편 공사와의 계약 연장 합의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미국 연방우체국과의 계약은 FedEx의 수익에 방해물이었다.
- 한편 UPS는 미국 연방 우체국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지만, 계약 기간과 관련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WSJ 기사

WSJ: AT&T Reset 7.6 Million Customers' Passcodes After Data Breach AT&T, 고객 정보 유출 후 7백60만 고객 비밀번호 리셋

- 회사 내 다크웹 고객 정보 유출 사건 이후, AT&T가 유출된 약 7백60만 명의 계정 비밀번호를 리셋했다.
- 토요일 AT&T는 공격받은 개인 정보 세트가 2019년 또는 그 이전까지의 고객에 관한 것이며, 약 2주 전에 다크 웹으로 유출됐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개인의 이름과 소셜시큐리티 넘버이다. 해당 정보에는 최소 6만5천만 명 이상의 이전 계정 소유자의 정보도 포함됐다.
- AT&T는 고객 정보 유출의 원인은 아직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WSJ 기사

Bloomberg: Walgreens Tightens Outlook as Shoppers Cut Back Spending Walgreens,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 고객 지출 감소 탓

- 소비자 지출 감소를 비롯한 소매업의 도전적 상황 속에서 월그린이 2024 회계연도 가이드를 하향 조정했다.
- Manmohan Mahajan 최고 재무책임자는 투자자들과의 통화에서 소비자들이 비필수 품목에 대한 소비를 줄이고, 더 저렴한 선택지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월그린이 호흡기 시즌에서 평소보다 약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 월그린은 약국 및 헬스케어 사업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Tesla Has Wall Street Worried About How Many Cars It Just Sold

테슬라를 향한 월가의 우려

-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감소와 금리 상승이 테슬라의 판매에 영향을 주면서, 해당 기업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애널리스트들은 이번 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 이번 주 전기차 인도분 보고 전망치를 대폭 낮췄다. 월가의 일부는 팬데믹 이후 최초의 테슬라 매출 감소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다.
- 블룸버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테슬라가 이번 분기에 45만3천9백64대의 차량을 인도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연중 판매량이 가장 많은 4분기의 기록보다 6% 이상 감소한 수치이다.
- 작년 동 분기 판매량인 42만2천8백75대를 넘어, 2020년 2분기 이래 최초의 전년 대비 감소를 피하는 것이 관건이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한은 "한국 국채금리, 미국 따라 움직이는 경향 심해졌다"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국고채금리 변동성 커질 가능성"

최근 수년간의 글로벌 통화 긴축 기간에 우리나라 장기 국채 금리가 미국의 국채 금리를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더 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박한 통화정책 전환(피벗) 과정에서 미국 국채 금리 영향으로 한국 금리의 변동성도 커질 것으로 우려됐다.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다음날인 29일이 성금요일 휴장이어서 올해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인 이날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